



## 사람이 되돌아오는 농촌으로 가꾸기, 죽리마을

**소재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죽리

**단체명** 죽리마을회

**주요내용** 빙집 정비 및 마을 유휴자원 활용을 통한 마을 정비와 귀농·귀촌인 유입

**키워드** 빙집 정비, 귀농·귀촌인 유입, 마을의 유휴자원 활용

### 텃밭·농작물·농어촌 노후주택·빈집도 소중한 마을 자원

증평읍 중심지와 증평 최남단 좌구산 사이에 위치한 증평군 증평읍의 죽리마을은 서쪽에 위치한 삼보산 때문에 삼보산골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삼보산이 마을 뒤를 병풍처럼 감싸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금강 발원지의 하나인 삼기천이 흐르고 남북방향으로 길게 뻗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로부터 산수가 조화를 이루는 평야지대로 인근에 잘 정리된 논이 많은 평탄한 지역이며 능평농협미곡처리장이 소재하는 등 살기 좋은 마을이다.

이와 같이 우수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이 있지만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65% 이상을 차지하고 슬레이트 주택 비율이 44% 이상을 차지하는 등 경관에 있어서는 매우 열악했다. 하지만 다양한 사업에 응모하고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 끝에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제1회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동 주관한 ‘제1회 농촌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농촌의 노후화된 주택 및 빈집 정비가 시급한 이때, 타 농촌마을에 귀감이 되는 죽리마을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 **공폐가 깜짝 변신... “와~ 귀농하고 싶네”**

죽리마을은 증평군에서도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슬레이트 지붕 주택이 상당수를 차지하여 생활환경이 열악한 마을이었다. 2012년 고향으로 돌아온 김웅희 이장 (63)은 수두룩한 폐가와 지저분한 마을 길가를 보고 적지 않은 실망을 했다. 무엇보다 마을에 대한 애정이 없는 동네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마을을 살리고 후손들이 돌아와 살고 싶은 마을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는 마을리더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교육을 수료하고 증평군의 담당 직원들과 교류하며 슬레이트 주택과 빈집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2012년부터 마을주민들은 종합정비사업을 계획하여 정부 사업에 공모하였으나 선정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농촌 현장포럼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은 마을경관을 훼손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빈집 및 유휴시설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죽리마을은 주민 137명 중 65세 이상이 41명으로 30%에 달하는 초고령화 마을이기 때문에 향후 소멸 우려가 없는 마을을 만들고자 귀농·귀촌 중심마을 조성을 추진했다.

죽리마을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새뜰사업(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선정되어 2015~2017년까지 농촌경관 보전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 11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박샘공원, 대나무 공원, 뜨락원 등을 조성하여 열악한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였다.

박샘공원은 방치된 마을의 옛 우물터를 복원하여 만든 마을 내 공원이며 세종대

왕이 초정 약수로 가는 길에 표주박으로 물을 먹었다는 ‘박샘’ 설화를 바탕으로 조성되었다. 공원의 측면은 유휴 담장을 활용하여 조선시대 독서광 김득신의 시 ‘죽리고연’을 벽화로 그려넣었는데, 수많은 방문객들을 위한 마을의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500년 된 느티나무와 함께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 마을 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0년 넘게 방치되었던 마을회관을 철거하고 조성된 대나무 공원은 마을 내에 있는 죽리초등학교의 학생들이 그린 그림타일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디자인 가벽, 파타일 의자, 대나무 조형벤치, 플랜터, 대나무 조형물 등을 설치하였으며 죽리마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공원으로 재구성되었다. 평소에는 경로당을 찾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며 마을 방문객들의 포토존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나무 공원의 벤치는 스페인의 가우디 건축물인 구엘공원 뱀 모양 의자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큰 꿈이지만 외국인도 우리 마을을 많이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요.”

또한 마을 내 폐축사를 철거한 유휴지를 활용하여 마을의 광장인 뜨락원을 조성했다. 이팝나무와 느티나무가 광장을 둘러싸고 있어 싱그러움을 자아내며 흙밭을 대신한 조경석이 바닥에 깔려 깔끔한 광장으로 재탄생했다. 뜨락원은 현재 죽리



사람이 되돌아오는 농촌으로 가꾸기, 죽리마을 | 41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시지체험관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체험객들의 쉼터와 야외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마을길 주변 녹지 공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골목길 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였고 주진입 도로변을 감나무 가로수 길로 재정비하여 경관을 향상시켰다.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을 반영하여 특색 있는 담장을 만들었다.

마을 이장은 2013년 연말, 한 채의 빙집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이듬해 빙집도 철거하면서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먼저 19가구를 대상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 칼라 강판 등으로 개량하여 노후주택 개·보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낙후된 주택 1가구를 대상으로 난방비 절감을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벽체 창호 및 출입문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11가구의 노후화된 화장실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위생환경 및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켰다.



특히, 마을 이장은 빙집 철거를 위해 빙집 소유자 설득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와 함께 적은 자부담 비용으로 쉽게 철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의 노력을 바탕으로 총 15채의 빙집 중 13채를 철거하였고 철거된 터를 마을의 자원으로 개발하였다.

먼저 경로당 앞에 위치한 빙집은 철거 후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 공유형 쇄석포장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다. 죽리마을의 체험 프로그램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한 방문객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었고 마을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전/후)



“정비를 하기 전에 우리 마을은 폐허가 많았어요. 저녁에 다니면 무서울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꾸미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니 마을 분위기가 밝아지면서 마을 사람들도 밝아졌어요. 처음에는 이 사업으로 얼마나 바뀔지 의아했지만 이제는 상도 받고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는 걸 보니 마을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어요.”

또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1억 5천만 원의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을 위한 거주지를 마련하였다. 빙집을 철거한 터에 주택을 신축하여 2015년에는 귀농인의 집 1호와 2호를, 2017년에는 3호와 4호를 만들었으며 기존 신축주택과 달리 4호는 리모델링했다. 1호와 2호는 빙집을 철거한 땅의 소유주로부터 무상으로 임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귀농인의 집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했다. 그러나 3호와 4호는 지속적인 마을 발전을 위해 마을 주민들은 죽리마을회를 통해 구매하여 마을의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귀농인의 집은 귀농·귀촌 희망인을 대상으로 6~12개월 기간 동안 농촌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비 귀농·귀촌인의 농촌 적응 공간인 농업·농촌 인큐베이터 용도로 활용된다. 귀농인의 집은 도시지역(동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다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죽리마을은 귀농인의 집을 통해 총 10가구를 받았으며 그 중 3가구가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로 인해 2014년 117명, 51가구였던 마을의 인구는 2018년 현재 137명, 61가구로 약 17%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 기존의 농촌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김웅희 이장은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했다. 먼저 마을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을 피해 귀농인의 집 건립을 추진했는데 이는 마을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관심이 때로는 독이 되어 귀농·귀촌인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까지 마을 회의에 참석하는 귀농·귀촌인들은 없지만 불참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의 텃세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 있다.

한편, 귀농인의 집 조성 등의 사업 추진 이후 소시지 체험·소득마을 육성을 위해 주민 30명으로 삼보산골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 12월에 농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었다. 지역의 특산물인 홍삼포크와 천연벌꿀을 활용한 소시지 만들기와 소시지 요리 및 시식 체험 프로그램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000여 명이 마을을 방문하여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뜨락원, 박샘공원, 대나무 공원 등을 견학하고 있다.

이외에도 죽리마을은 마을주민과 귀농·귀촌인을 위해 마을의 자원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기존도로를 연결하는 농로길을 신설하여 주민들의 차량통행이 원활 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고했고 원활한 상수 공급과 환경개선을 위해 우수관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깨끗한 농업생산 환경을 위해 농경지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산수유나무 거리를 조성하였다.

## 다양한 콘텐츠로 성장 방안 모색

아직 죽리마을 내에는 지상권 문제로 철거하지 못한 빈집이 한 채 남아 있다. 하지만 2020년에 추진할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사업을 통해 남은 빈집을 철거할 계획이며 죽리마을회에서 그 터를 구입해 귀농인의 집 5호 조성을 꿈꾸고 있다.

또한 향후 소시지 체험 마을 활성화를 통해 빈집 및 유휴지 활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귀농인의 집, 소시지 체험관, 뜨락원, 박샘공원, 대나무 공원, 주차장 등 마을 인프라를 상호 연계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마을의 경관 개선에 도움을 준 여러 가지 조형물 및 벽화의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김웅희 이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고향에 돌아오려는 귀소 본능이 맞물려 귀농·귀촌인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죽리마을이 이 흐름에 발 맞춰 갈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을 늘릴 계획이다. 죽리마을의 사례를 통해 빈집으로 신음을 앓고 있는 타 농촌들의 발전을 기대해본다.